

소중한 가족과 이웃을 지키기 위한

지진 대변

도민 행동요령

지진 대비

도민 행동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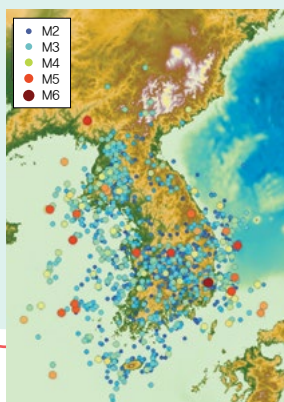
1. 지진이란 ?

- 지구내부에서 일어나는 급격한 변동에 의하여 생긴 에너지가 파동으로 변하여 전파되는 현상으로 인류 문명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재난입니다.
- 자연재해인 지진의 발생은 예측이 어려우므로 국가와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지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2. 왜, 우리나라에 지진이 일어나는가?

- 태평양쪽으로 남측에 필리핀판, 동측에 태평양판, 북측에 북아메리카판과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는 유라시아판 등 4개의 판이 서로 움직여 우리나라 단층에 힘이 쌓이면서 지진이 발생하게 됩니다.



3. 우리나라 진앙지 분포도 (1978.8~2016.10)

- 진원은 지진을 일으키는 에너지가 처음 방출된 지점이며, 진앙은 진원에서 연직으로 지표면과 만나는 지점입니다. 이 그림은 한반도에서 1978.8~2016.10 사이에 발생한 지진의 진앙지를 규모별로 표시한 것입니다. (기상청 발표 규모 2.0 이상의 진앙지 분포도)



I. 지진 발생 전 준비사항

- | | |
|----|----------------------------|
| 08 | 1. 지진의 규모와 진도란? |
| 10 | 2. 가정에서의 지진대비 가족회의 |
| 12 | 3. 가족과의 연락방법 확인 |
| | 4. 집에서의 탈출경로 확인 및 탈출훈련 |
| 13 | 5. 대피소까지의 대피경로 확인하기 |
| | 6. 우리 마을 방재활동에 참여하기 |
| 14 | 7. 지진대비 비상용품 준비하기 |
| | 7-1 비상식품과 상비약 준비하기 |
| | 7-2 피난용품 준비하기 |
| 15 | 8. 화재 방지하기 |
| | 8-1 화재에 대비하기 |
| | 8-2 전기 누전 방지하기 |
| 16 | 8-3 가스 누출 방지하기 |
| | 8-4 석유 및 연탄난로 등의 발화 방지하기 |
| 17 | 9. 주택의 내진 진단 · 내진 보강 방법 |
| | 9-1 주택 내진 진단받기 |
| | 9-2 내진 보강하기 |
| 19 | 10. 블록담장, 돌담의 철거 또는 보강 |
| | 11. 가구 · 가전제품 고정하기 |
| | 11-1 가구의 쓰러짐 방지하기 |
| 20 | 11-2 가전제품 등의 쓰러짐 · 낙하 방지하기 |
| | 11-3 가구 재배치하기 |

II. 지진 발생 시 대응요령

[건물 안에 있는 경우]

- | | |
|----|------------------------------|
| 22 | 1. 일반 주택 |
| | 1-1 가정에서의 기본적인 행동요령 |
| | 1-2 자고 있을 때에는 |
| 23 | 1-3 욕실 및 화장실에서는 |
| | 1-4 주방에서는 |
| 24 | 1-5 2층에서는 |
| | 1-6 방에 갇혀 있으면 |
| | 2. 아파트에서는 |
| 25 | 3. 직장에서는 |
| | 4. 마트, 편의점 또는 백화점에서는 |
| 26 | 5. 영화관, 공연장, 전시관, 실내경기장 등에서는 |
| | 6. 지하상가에서는 |

CONTENTS

- 27 7. 학교에서는
- 8. 엘리베이터에서는
- 28 9. 지진 발생 시 사회적 약자 배려
 - 9-1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 영·유아의 경우
 - 9-2 장애인의 경우
 - 9-3 외국인의 경우

[건물 밖에 있는 경우]

- 29 1. 주택지 및 아파트 단지에서는
- 30 2. 오피스텔가 또는 변화가에서는
- 3. 해안가에서는
- 31 4. 해안과 연접한 하천변에서는
- 5. 산간, 산악, 구릉지에서는

[교통수단 내에 있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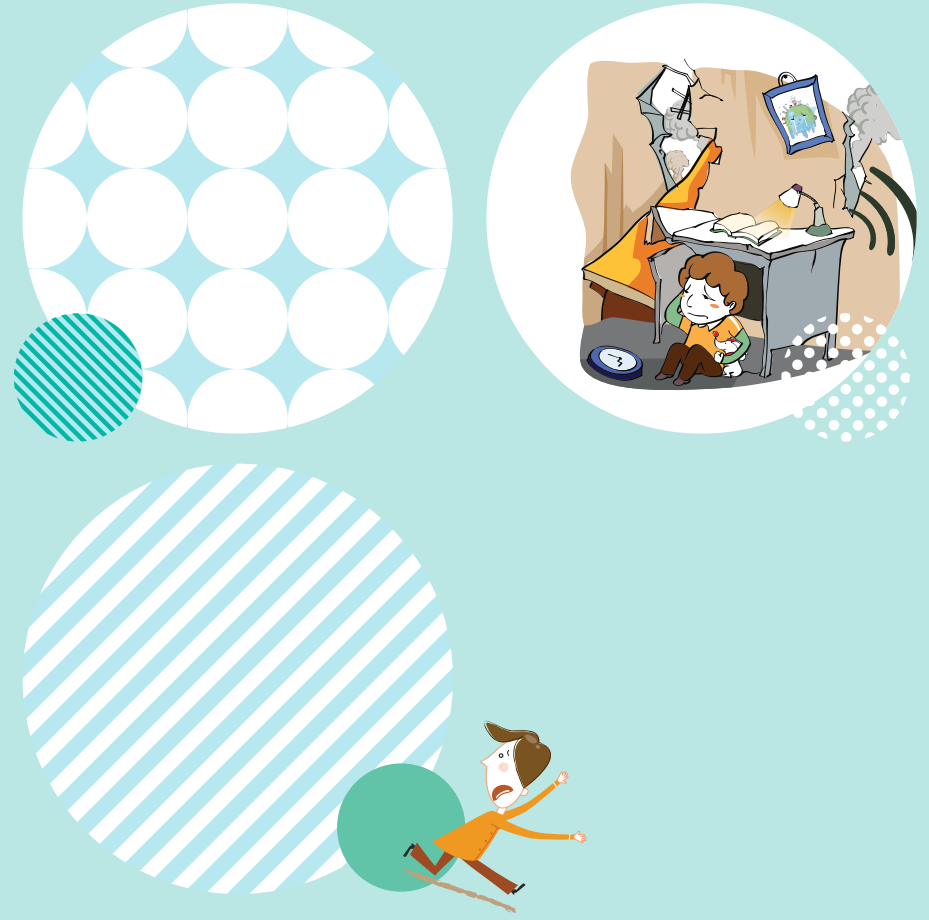
- 32 1. 자가운전 중인 경우
- 33 2. 전철 내에서는
- 3. 고속열차(KTX) 내에서는
- 34 4. 지하철 내에서는
- 5. 버스 내에서는

Ⅲ. 지진의 흔들림이 안정된 후 대응요령

- | | | | |
|----|--------------------|----|----------------------|
| 36 | 1. 신변의 안전 확보 | 39 | 4. 귀가 곤란자의 경우 |
| | 2. 피난 시 올바른 판단방법 | | 4-1 귀가 판단 시 고려해야 할 점 |
| 37 | 3. 피난 시 행동요령 | | 4-2 귀가 방법 |
| | 3-1 집을 나설 때에는 | 40 | 5. 구출 및 구호방법 |
| | 3-2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 | 5-1 초기 화재진화 방법 |
| 38 | 3-3 대피소로 피난할 때에는 | | 5-2 구출활동 및 구호활동 |
| | 3-4 인파 속에서는 패닉에 주의 | 41 | 5-3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
| | | 42 |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Q&A |
| | | 45 | 풍수해 보험 |
| | | 46 | 지진 발생 시 주요 행동요령 |

Ⅳ. 피난카드 및 비상용품 점검표

- 48 피난카드
- 50 비상용품 점검표
- 51 비축용품 점검표
- 52 관련기관 연락처
- 53 가족을 위한 대피용 지도 작성



I. 지진 발생 전 준비사항

지진 발생 전 준비사항

01 지진의 규모와 진도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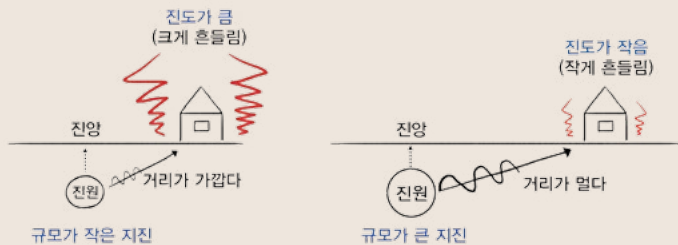
거주지역이나 건물에 따라 흔들림의 강도가 다릅니다

- 규모(매그니튜드)는 지진 자체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실제 흔들림의 강도(진도)와는 다릅니다.
- 진도(인텐시티)는 지면의 진동의 세기를 나타내는 용어로서, 같은 지진이라도 지반에 따라, 같은 건물이라도 층에 따라 흔들림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과거 일본 기상청 계급(JMA scale)을 사용하여 왔으나, 2001년 1월 1일부터는 세계의 여러 나라가 사용하고 있는 수정 메르칼리 진도계급(MMI scale ; Modified Mercalli Intensity scale)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등급은 12개 등급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진 피해 규모에 근거를 둔 수이며 일반적으로 진도는 로마숫자의 정수로 표시합니다.

	규모 2.9 이하	진도 I	지진계만 감지
	3.0~3.9	진도 II	실내의 극히 일부만 감지
		진도 III	실내에서 감지
	4.0~4.9	진도 IV	실내에서 전등이 흔들림
		진도 V	많은 사람이 진동 감지
	5.0~5.9	진도 VI	실외에서도 감지 가구 흔들림
		진도 VII	지진의 공포 느낌 유리창 깨짐
	6.0~6.9	진도 VIII	제대로 걷지 못할 건물 피해
		진도 IX	서 있기가 힘들 건물 붕괴
	7.0 이상	진도 X	서 있기가 불가능 다수의 건물 붕괴
		진도 XI	다리 붕괴 지표면 균열
		진도 XII	모든 것 붕괴

※ 우리나라와 일본의 진도 기준은 다르며, 지진 규모는 동일하더라도 진원까지의 거리 및 지반/건물 등의 특성에 따라 진도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 우리나라 적용 지진 규모와 진도(MMI)

규모	진도	일어나는 상황	비고
2.9 이하	I	- 지진계만 감지 가능	
	II	- 실내의 극히 일부만 감지	
3.0~3.9	III	- 실내에서는 감지하지만, 실외에서는 거의 감지 못함 - 정지하고 있는 자동차는 약간 흔들림	
4.0~4.9	IV	- 실내 매달린 전등이 흔들리기도 하지만, 실외에서는 거의 감지 못함 - 밤에 잠을 깨며 그릇, 창문 등이 소란하며 벽이 갈라지는 소리가 남 - 정지하고 있는 자동차의 움직임이 뚜렷함	
	V	- 많은 사람이 진동을 감지함 - 많은 사람들이 잠에서 깨며, 약간의 그릇과 창문 등이 깨짐	
5.0~5.9	VI	- 모든 사람이 진동을 감지함 -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밖으로 뛰어 나가며 무거운 가구가 움직임	※ 2016년 9월 12일 지진 해당
	VII	- 많은 사람이 지진의 공포를 느낄 수 있음 - 모든 사람들이 밖으로 뛰어 나오는 수준 - 유리창이 깨어지기도 함	
6.0~6.9	VIII	- 흔들림으로 인해 제대로 걷지 못함 - 건물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함 - 부실한 건축물은 심한 피해가 발생하는 수준 - 고정되지 않은 집기, 가구 등이 넘어짐	
	IX	- 서 있기가 힘들 - 건물의 붕괴가 일어남 - 설계가 잘 된 구조물도 기울어지고, 부분적으로 붕괴됨 - 건물은 기초에서 벗어남 - 땅은 명백하게 갈라지며 지하 파이프도 구부러짐	
7.0 이상	X	- 서 있는 것이 불가능하며 선로가 휘어지고, 많은 건축물이 붕괴됨	
	XI	- 다리가 붕괴되고 지표면에 균열이 발생	
	XII	- 모든 것이 붕괴됨	

>> 지진 발생 전 준비사항

02 가정에서의 지진대비 가족회의

지진 발생 시 우리 가족이 당황하지 않고 행동할 수 있도록 평소 대피에 관하여 의견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해 둡시다

- 지진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지진 발생 시간대 혹은 누가 집에 있는지 등 다양한 경우를 생각하여 대피계획을 세워둡니다.

왜? 대피계획은 내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 의견을 나눌 땐 생각해 둔 사례별로 역할을 정하고,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어린이, 영·유아, 외국인 등 가족구성원의 특징도 고려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 집안에서 어디가 가장 안전한가?
- 피난장소, 대피로는 어디인가?
- 비상대피용 가방은 어디에 놓여있는가?
- 가스나 전기 등을 차단하는 곳은 어디인가?

- 지진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알아둡시다.

- 지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상청 및 지방자치단체 연락처를 알아둡니다.
- 정부에서 제공하는 재난정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둡니다.

- 이름, 주소, 연락처, 혈액형 등 자신 및 가족의 정보를 기재한 피난카드를 작성하여 평상시에 휴대합니다.

왜? 피난카드는 비상 시 나의 생명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 국민안전처 안전 디딤돌
- 안전신문고
- 기상청 지진정보 알리미



※ 직장에서의 재해대책 준비

- 방재 매뉴얼을 만듭니다.

- 회사에서는 방재담당을 정하여 방재회의를 열고 피난방법이나 피난장소, 연락망 등의 규칙을 만듭니다.
- 재해 발생 후 귀가 곤란자가 나올 경우를 대비해 필요물품 비축, 계획 등 자체 준비가 필요합니다.
- 인사이동 등으로 직장 환경이 바뀔 경우에는 매뉴얼을 다시 정비하도록 합니다.

- 지진재해 방재교육·훈련을 실시합니다.

- 평소에 교육 및 매뉴얼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고 불편한 점이 있으면 재검토 하여 유용한 것으로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지역 전문가 및 소방서에 상담합니다.



※ 아파트에서의 재해대책 준비

- 방재 매뉴얼을 작성합니다.

- 아파트에서는 관리사무소에서 방재 매뉴얼을 작성하여 전체 거주자에게 배포하고, 방재 훈련 등을 실시합니다.

- 실내에 피난장소를 확보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내진설계 여부를 관리사무소에 확인합니다)

- 회의실, 현관 등의 공간 또는 집집마다 안전한 장소를 확보합니다. 그 외 운동공간, 놀이터 등의 공용 공간이 있지만 유리의 비산 등이나 낙하물의 위험이 있는 곳은 피합니다.

- 구조용 자재는 분산·배치해 둡니다.

- 고층주택의 구조용 자재는 엘리베이터가 정지되면 고층에 들고 올라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층의 공용 공간에도 구조용 자재를 분산시켜서 배치해 두면 안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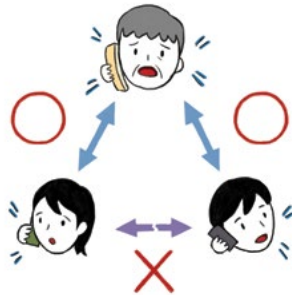
>> 지진 발생 전 준비사항

03 가족과의 연락방법 확인

재해 시 가족들과 헤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서로의 안부 확인수단 및 집합장소 등을 생각해 둡시다

왜? 비상시에는 전화, 휴대폰 등 연락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가족들과 떨어져 재해를 당했을 경우, 자신의 안전을 확보한 후 가족의 안부를 확인합니다.
- 외출 중에 귀가 곤란해져 가족과 헤어지게 된 경우의 안부확인 방법이나 집합장소도 결정합니다.
- 재해발생지역에서는 연락수단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휴대폰 외에도 유선전화, 인터넷(이메일), SNS(페이스북, 트위터 등) 등의 활용방법을 알아 둡시다.



04 집에서의 탈출경로 확인 및 탈출훈련

흔들림이 멈추면 우선 집에서 안전하게 탈출해야하므로 평소에 집에서 밖으로 탈출하는 경로를 확인하고 훈련해 둡시다

왜? 탈출경로 확인과 훈련은 생명안전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 지진으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집 안에서 밖으로 피난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확인해 둡니다.
- 탈출경로에는 평소에 물건을 두면 안 됩니다.
- 취침시간에 지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까운 곳에 손전등이나 비상용품을 준비해 둡니다.
- 2층 등으로부터의 탈출을 위해 피난사다리를 준비해 둡니다.
- 아파트의 경우, 엘리베이터는 이용하지 말고, 반드시 계단을 이용하여 탈출합니다.



05 대피소까지의 대피경로 확인하기

집에서 대피소까지의 대피경로를 확인하고, 가족과 함께 걸어봅시다

왜? 신속히 대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평소 대피소까지 가족과 함께 실제로 걸어가 보면서 안전한 경로를 확인해 둡니다.
- 지진 시엔 집에서 대피소까지 가는 길이 평소와 달리 통행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대체경로를 알아두면 좋습니다.
- 아이들과 집에서 대피소까지의 지도를 그려보면서, 위험장소나 피난 시에 도움이 될 정보 등을 적어 두면 도움이 됩니다.



06 우리 마을 방재활동에 참여하기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역 방재훈련 등에 적극 참여합시다

왜? 방재훈련은 생명을 확실하게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 지진 시에 초기 진화나 가족의 구출·구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의 훈련이 꼭 필요하므로 가족 전원이 지역 방재훈련에 참가하여 훈련해야 합니다.
- 인공호흡 방법을 익혀두면 가족이나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 소화기 작동방법을 배워두면 지진 후 발생하는 화재의 초기진화 시 큰 도움이 됩니다.
- 지역의 자율방재조직에 참여하여 내 마을·내 가족 지키기에 참여합니다.
- 가족 회의는 물론, 학교나 인근 주민들과 방재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이 방재 책자 '지진대비 도민 행동요령'을 활용합니다.



>> 지진 발생 전 준비사항

07 지진대비 비상용품 준비하기

7-1 비상식품과 상비약 준비하기

지진이 발생하면 일상 생활이 불가능해집니다
며칠간 생활할 수 있는 『비상식품과 상비약』을 준비해 둡시다

왜? 지진위기 시의 생활에서 우리가족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 약 3일분 정도의 물이나 식료품을 준비합니다.
- 가족구성, 주택과 지역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것이 다릅니다. 자신과 가족에게 실제 필요한 것들을 생각하여 준비합니다.
- 가족, 지역 상황, 유통기한 등에 맞춰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교체합니다.



7-2 피난용품 준비하기

지진의 피해 정도에 따라 피난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난할 때 들고 갈 『피난용품』을 준비해 둡시다

왜? 미리 준비된 『피난용품』은 빠른 대피를 가능하게 합니다.

- 피난용품은 피난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을 최소한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피난용품은 현관이나 침실 등 꺼내기 쉬운 곳에 보관하고, 즉시 꺼낼 수 있어야 합니다. 등에 멜 수 있는 가방 등에 넣어두면 가지고 나갈 때 손을 사용하기에 편리합니다.
- 이 책의 마지막에 있는 '비상용품 점검표'를 활용합니다.



08 화재 방지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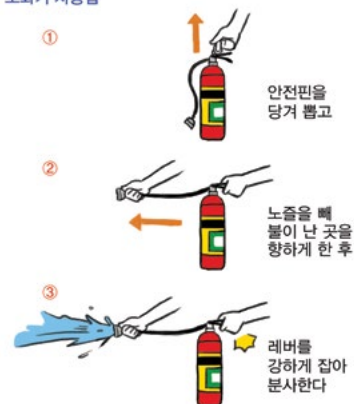
8-1 화재에 대비하기

지진 시 가스 누출이나 누전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 대비해야 합니다

왜? 화재로 인한 2차 피해가 크기 때문입니다.

- 발생 시간대와 계절, 장소 등에 따라 화재의 위험성은 다릅니다. 여러 상황을 감안하여 화재방지에 힘씁시다.
- 평소 소화기의 올바른 사용법을 익히고, 유사시 사용하기 쉬운 장소에 비치해 두어야 합니다.
- 또한 소화기에는 유효기간이 있으므로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 아파트나 빌딩 등 건물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점검합니다.

소화기 사용법



8-2 전기 누전 방지하기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전기도 지진 시에는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가전제품 옆에 꽃병이나 수조 등 물이 든 물건을 두면 안 됩니다. 지진으로 깨져 콘센트에 물이 닿아 발화할 위험이 있습니다.
- 전기가 복구되었을 때 쓰러진 채로 전기제품이 작동하여 발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전차단기가 내려가면 쓰러진 전기제품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 지진 발생 전 준비사항

8-3 가스 누출 방지하기

가스도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지만
지진 시에는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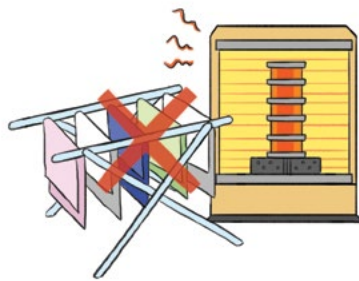
- 지진 진동이 멈춘 후 탈출 전에 가스가 차단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가스레인지 주변의 선반 등에서 타기 쉬운 물건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옥외에 LPG가스통이 있는 경우에는 흔들림에 가스통이 넘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8-4 석유 및 연탄난로 등의 발화 방지하기

지진 시에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인으로
석유 또는 연탄난로가 있습니다

- 석유난로에 석유를 넣을 때 석유를 흘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또한 진동에 의해 쓰러져도 석유가 새지 않도록 주유구를 꼭 닫는 습관을 들입니다.
- 난로 옆에는 세탁물이나 커튼 등과 같이 불에 잘 타는 물건을 두면 안 됩니다.



09 주택의 내진 진단·내진보강 방법

9-1 주택 내진 진단받기

대지진이 발생하면 주택 붕괴에 의한 사망자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주택의 내진 진단을 받고 자신의 집이 안전한지 확인합시다

- 자신의 집이 내진설계가 적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건축된 지 오래되어 낡은 건물이나 지반이 좋지 않은 부지에 세워진 건물, 벽과 기초에 균열이 있는 건물 등은 내진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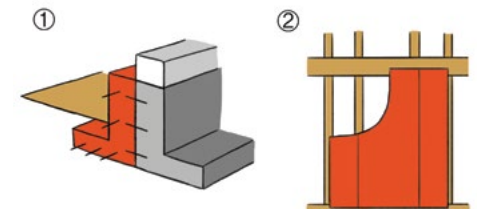
※ 우리나라 건축물의 내진설계 의무규정은 1988년에 도입되어, 내진설계 의무적용 대상이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이었으나, 1995년에 6층 이상, 1만㎡ 이상으로 확대된 뒤, 2005년부터는 3층 이상, 1,000㎡ 이상으로 확대 적용되었으며, 2015년 개정을 통해 3층 이상 또는 500㎡ 이상인 모든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 했습니다.

9-2 내진 보강하기

지진발생 후에도 평소처럼 생활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내진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필요에 따라 내진 보강을 실시하고 내 집의 안전을 확보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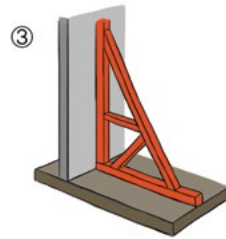
- 내진 보강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 ① 콘크리트를 이용한 기초 보강
- ② 구조용 합판과 버팀목 등을 이용한 벽면 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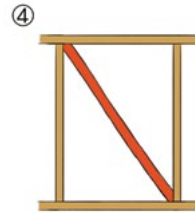


>> 지진 발생 전 준비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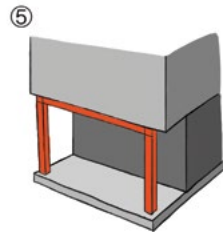
③ 버팀벽 등을 이용한 건물의 외부 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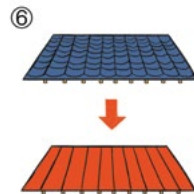
④ 버팀목 등의 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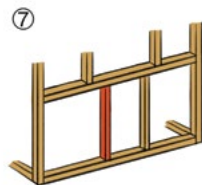
⑤ 베란다 등 '돌출부'의 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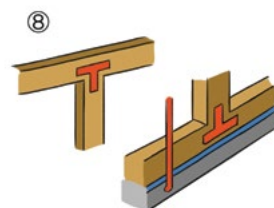
⑥ 지붕의 경량화



⑦ 기둥의 증설



⑧ 기둥과 보 등의 교환 및 금속 보강



10 블록담장, 돌담의 철거 또는 보강

규모가 큰 지진 시에는 담장 붕괴에 의해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쓰러진 담은 도로를 막아 대피나 구조·소화 활동을 방해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 블록 담장은 기준에 맞게 시공해야 하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담장은 매우 위험합니다. 또한 돌담은 돌과 돌을 이어서 보강하기 어렵기 때문에 충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블록 담장과 돌담 등은 전문가로부터 강도의 확인을 받고, 필요에 따라 철거하거나 보강을 해야 합니다. 담장을 수목 울타리로 바꾸는 것도 지진에 효과적입니다.



11 가구·가전제품 고정하기

11-1 가구의 쓰러짐 방지하기

건물이 무너지지 않아도 실내의 가구 등이 쓰러지면 밑에 깔려 부상을 입거나 대피경로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옷장과 선반은 L자형 금속 등으로 벽이나 기둥에 고정합니다.
- 서랍장이나 여닫이문에는 고정 장치 등을 달아 내용물이 튀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유리문의 경우에는 유리 비산방지 필름을 붙여두면 좋습니다.
- 벽과 가구의 종류에 따라 방법이 다릅니다. 자신의 집과 가구에 알맞은 방법을 선택하여 조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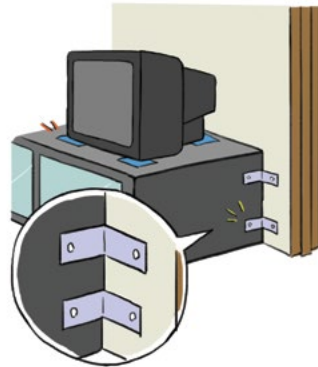


>> 지진 발생 전 준비사항

11-2 가전제품 등의 쓰러짐·낙하 방지하기

가전제품이 쓰러지거나,
조명기구가 낙하하는 것도 매우 위험합니다

- 가구 위에 텔레비전이나 컴퓨터를 올려놓은 경우에는 금속이나 내진시트 등으로 본체와 가구를 고정하고, L자형 금속 등으로 벽이나 기둥에 고정해 둡시다.
- 천장에 매다는 조명기구는 여러 개의 줄을 사용하여 천장에 고정하면 안전합니다.
- 형광등이나 전구는 깨져도 파편이 넓게 흩어지지 않도록 비산방지 처리가 된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11-3 가구 재배치하기

가구 등을 재배치하면 지진 피해를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왜? 지진 시 가구 등이 넘어져서 다치거나 출입구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어린이·노약자의 방, 침실, 출입구 근처에는 가급적 키 큰 가구는 두지 않도록 합니다.
- 침대 위치를 가구에서 멀리 하거나, 가구가 넘어지기 어려운 방향으로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무거운 가전제품은 가급적 낮은 위치에 두어야 합니다.
- 머리맡에는 깨지기 쉽거나 무거운 물건은 두지 않습니다.



II. 지진 발생 시 대응요령

지진발생 순간 어디에서나 반드시 해야 할 행동

01 최우선으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해야 합니다.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길어야 1~2분 정도입니다. 우선 가지고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주변의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빠르게 대피합니다.

02 지진 발생 직후 행동

- 흔들림이 멈춘 후 행동합니다. • 출구를 확보합니다.
- 주변의 불씨를 확인합니다. • 유리나 담벼락에 가까이 가지 맙시다.

>> 지진 발생 시 대응요령

《 건물 안에 있는 경우 》

01 일반 주택

1-1 가정에서의 기본적인 행동요령

단단한 책상이나 테이블 밑에 몸을 숨기고 책상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또한 머리는 방석 등으로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출 때까지 기다립니다

왜? 지진으로 흔들림이 시작되면 우선 낙하물로부터 머리나 다른 신체부위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갑작스런 큰 흔들림이 엄습하면 신체의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 선반 및 선반 위 물건, TV 등은 낙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정한 거리를 두고 흔들림이 멈출 때까지 책상이나 테이블 밑에서 기다립니다.
- 흔들림이 멈춘 후 문을 열고 출입구를 확보합니다.
- 당황해서 문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합니다. 재난방송 등의 청취 후 상황에 따라 행동합니다.
- 가족 중 노약자의 안전을 챙겨야 합니다.



1-2 자고 있을 때에는...

흔들림으로 인해 잠에서 깬다면 이불 속이나
침대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 어둠 속에서는 깨진 유리나 조명기구 파편 등에 의해 다치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가까운 곳에 항상 대피 가능하도록 두꺼운 양말이나 슬리퍼, 손전등, 휴대용 라디오, 핸드폰 등을 준비해 둡니다.
- 침실에 넘어지기 쉬운 물건 등은 두지 않도록 하고 물건이 떨어지지 않는 곳에 머리를 두고 잡니다.
- 안경은 평소 케이스에 넣어두면 파손을 방지할 수 있어 당황하지 않아도 됩니다.



1-3 욕실 및 화장실에서는...

흔들림이 느껴지면 먼저 문을 열고 대피로를 확보한 뒤
흔들림이 멈출 때까지 기다립니다

- 욕실 및 화장실 내에서는 타일이나 거울의 파편에 의해 부상을 입기 쉬우므로 타올 등으로 몸을 감싸는 것이 좋습니다.
- 욕조 속에 있다면 천장 등의 붕괴에 주의해야 합니다.
- 흔들림이 멈출 때까지 기다린 뒤 신속히 대피합니다.
- 갇혀서 대피하지 못하게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흔들림을 느끼면 갇히지 않도록 문을 열어 둡니다.



1-4 주방에서는...

우선 테이블 아래로 몸을 숨기고 흔들림이 멈출 때까지 기다립니다

- 조리 중인 경우 무리해서 불을 끄려 가면 조리기구가 낙하해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멈출 때까지 기다립니다.
- 찬장, 냉장고가 넘어지면서 안에 들어있던 물건이 튀어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 가스레인지 근처의 경우, 조리 중이던 냄비 등이 굴러 떨어질 수 있으니 우선은 가스레인지 근처에서 멀리 떨어진 뒤 흔들림이 멈추면 침착하게 불을 끕니다.
- 흔들림이 멈추면 다치지 않도록 바닥이 두꺼운 슬리퍼 등으로 발을 보호하고 문을 열어 대피 경로를 확보합니다.



>> 지진 발생 시 대응요령

1-5 2층에서는...

우선 테이블 아래로 몸을 숨기고
흔들림이 멈출 때까지 기다립니다

- 오래된 건물의 1층은 붕괴되고 몸이 깔릴 위험이 있으므로 황급히 1층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 내진기준을 충족시키지 않는 건물은 밖으로 탈출해야 하는지 상황을 보고 판단합니다.



1-6 방에 갇혀 있으면...

우선 흔들림이 멈출 때까지 침대나 책상 아래에서
몸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 만일 방에 갇히거나 움직일 수 없게 된 경우 계속 소리를 지르면 체력을 소모하여 생명의 위험이 있습니다.
- 단단한 물건으로 문이나 벽을 쳐 자기가 실내에 있는 것을 알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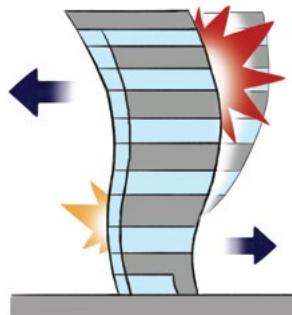


02 아파트에서는...

고층일 경우 지표보다 흔들림이
더 커질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 단단한 책상 등의 아래에 몸을 숨기고 흔들림이 멈출 때까지 기다립니다.
- 고층에서의 지진은 처음엔 천천히 흔들리지만 흔들림이 오래 지속되고 흔들림의 폭도 점점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 평소에 계단을 통한 비상 대피경로를 확인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 대피 시 엘리베이터는 이용하면 안 됩니다.

왜? 엘리베이터에 갇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03 직장에서는...

직장에서는 캐비닛 및 선반, 사물함, 복사기 등에서 멀리 떨어지고,
머리를 보호하도록 하며, 책상 밑에 몸을 숨겨야 합니다

- 유리창이 깨질 수 있으므로 창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 사무기기 등의 낙하에 주의합니다.
- 평소에 정리정돈 등 사무실 정리를 잘해둬야 합니다.
- 밖으로 피신할 때는 낙하물 등에 주의하고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사회적 약자(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어린이, 영·유아, 외국인)의 안전을 챙겨야 합니다.



04 마트, 편의점 또는 백화점에서는...

가방이나 장바구니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진열대 등이
넘어질 수 있으므로 멀리 떨어지도록 합니다

- 엘리베이터 앞과 비교적 상품이 적은 장소, 기둥 부근에 몸을 의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유리제품, 도자기, 기타 진열상품 등의 쓰러짐, 낙하 등에 주의합니다.
- 당황해서 출구 쪽으로 몰려가지 않도록 하고,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대피해야 합니다.
-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 사회적 약자(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어린이, 영·유아, 외국인)의 안전을 챙겨야 합니다.



>> 지진 발생 시 대응요령

05 영화관, 공연장, 전시관, 실내경기장 등에서는...

가방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좌석 사이에 몸을 숨기고 흔들림이 멈출 때까지 기다립니다

- 천장에서 떨어지는 낙하물 등에 주의하면서 기다렸다가, 흔들림이 멈추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합니다.
- 정전이 되어도 유도등 및 비상등이 켜져 있으므로 당황하지 말고 관계자의 지시에 따릅니다.
- 당황해서 출구나 계단 쪽으로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합니다.
- 사전에 비상구를 확인해 둡니다.
- 주위에 사회적 약자의 신변을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맙시다.



06 지하상가에서는...

가방, 핸드백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출 때까지 기다립니다

- 정전이 되어도 비상등이 켜질 때까지 선불리 움직이지 않도록 합니다.
- 정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패닉 상태에 빠져 비상구로 한꺼번에 몰리면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침착하게 낙하물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기둥이나 벽 옆에서 흔들림이 멈출 때까지 기다립니다.
- 지하도에는 비상구가 여러 곳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질서를 지키면서 지상으로 침착하게 탈출합니다.
- 탈출할 때는 벽에 바짝 붙어 앞뒤의 노약자를 살피면서 탈출합니다.
- 화재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하도는 비교적 안전하므로 침착하게 행동합니다.
- 주위에 사회적 약자의 신변을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맙시다.



07 학교에서는...

교실에서는 책상 밑에 몸을 숨기고 낙하물 등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도록 하며, 흔들림이 멈추면 평소 지정된 경로와 순서에 따라 대피합니다

- 복도, 운동장, 체육관 등에서는 중앙에 모여 앉도록 합니다.
- 실험실 등에서는 약품이나 화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 귀가 시에는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며, 정해진 계획에 따라 부모님 또는 친구들과 함께 그룹을 지어 귀가해야 합니다.



08 엘리베이터에서는...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정지한 층에 내리는 것이 원칙이며, 정지한 층에 내리기 전 복도의 안전여부를 확인한 후 대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갇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지진 발생 시 엘리베이터 안에 갇히는 경우에는 구조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비상호출 버튼] 등으로 연락을 취하면서 침착하게 기다립니다.
- 주위에 사회적 약자의 신변을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맙시다.



>> 지진 발생 시 대응요령

09 지진 발생 시 사회적 약자 배려

9-1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 영·유아의 경우

- 가정에서는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 영·유아 등을 위한 방, 가구 등의 배치 및 가족과 같이 없을 때를 고려한 다양한 경우를 생각하여 대피계획을 세워둡니다.
- 주택, 공공장소, 대중교통, 길거리 등에서 노약자, 임산부, 영·유아의 경우에는 행동을 빨리 할 수 없으므로 흔들림이 있을 때 빨리 대피할 수 있도록 가족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함께 도와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비상연락전화(119, 112 및 지역재난종합상황실 등)로 연락하여야 합니다.
-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 영·유아는 최종 대피소까지 가족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이 동행합니다.
- 가정에서는 노약자나 임산부가 필요한 물건(약, 의류, 물품 등)은 가족 중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9-2 장애인의 경우

- 가정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방, 가구, 휠체어(전동 휠체어), 보청기, 안경, 시각장애인용 지팡이와 그 외 장애인용 보조기구 등의 배치 및 가족과 같이 없을 때를 고려한 다양한 경우를 생각하여 대피계획을 세워둡니다.
- 주택, 공공장소, 대중교통, 길거리 등에서 장애인의 경우에는 상황을 빨리 인지할 수 없으므로 흔들림이 있을 때 빨리 대피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함께 도와줍니다.
- 이웃에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뇌병변장애인 등이 살고 있을 경우에는 흔들림이 멈춘 후 피난 시 혼자 남아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이웃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의료 수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먼저 발견한 사람이 지체 없이 비상연락전화(119, 112 및 지역재난종합상황실 등)로 연락을 취하고, 위급 시 여러 사람이 함께 도와주어야 합니다.
- 가정에서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장애인용 보조기구, 약품 등은 출입구 쪽에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두고, 이동 시에는 최종 대피소까지 가족이 동행합니다.



9-3 외국인의 경우

- 외국인의 경우는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을 때 불안해 할 수 있으므로 주변의 통역 가능한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 통역이 불가능한 위급한 경우에는 행동으로 의사 전달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 관광 중인 외국인의 경우는 주변의 대피소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빠른 시간 내 가까운 대피소로 안내합니다.



《건물 밖에 있는 경우》

01 주택지 및 아파트 단지에서는...

강한 흔들림이 발생하면 주택가 골목에서는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주택가 골목에 있는 담장이나 돌담은 강한 흔들림에 쓰러질 위험이 있으므로, 흔들림이 느껴지면 담에서 멀리 떨어집니다.
- 전신주, 간판, 자판기 등이 넘어질 수 있으므로 옆에서 떨어집니다.
- 지붕 기와, 2층 이상의 주택 및 아파트 베란다에 놓인 에어컨 실외기, 원예용 화분 등이 낙하할 수 있으므로 머리 위를 주의합니다.
- 강한 흔들림이 발생하면 내진 성능이 낮은 주택이 붕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건물 잔해나 유리 파편에 주의해야 합니다.



>> 지진 발생 시 대응요령

02 오피스텔가 또는 변화가에서는...

중·고층 빌딩이 늘어선 오피스텔가나 변화가는 창문 유리파편, 외벽, 간판, 에어컨 실외기 등이 낙하할 위험성이 높습니다

- 오피스텔 빌딩의 유리창이 깨져 낙하하면 시속 40~60km로 광범위하게 퍼집니다. 건물 외벽 및 타일, 외벽에 설치된 간판 등이 벗겨져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방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건물에서 떨어진 넓은 공터나 공원 등으로 대피 합니다.
- 변화가는 상점 간판이나 네온사인 등이 떨어질 위험이 많으므로 대피 시 가방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대피해야 합니다.
- 상가 쇼윈도 유리 파편의 비산에 의한 부상, 블록 담 등이 무너지면서 그 아래에 깔릴 수 있으므로 유리나 담벼락에 접근하지 맙시다.
- 넓은 곳으로 대피할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내진성이 높은 새로운 철근 콘크리트 빌딩으로 피합니다. 혼잡한 곳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패닉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은 곳이야말로 냉정한 행동이 요구됩니다.



03 해안가에서는...

해안에서 강한 흔들림이 느껴지면 쓰나미(해일)에 대비해야 합니다. 피난 지시나 권고를 기다릴 필요 없이 안전한 고지대 및 정해진 대피소로 피신해야 합니다

- 근처에 고지대가 없는 경우에는 3층 이상의 건물을 찾아서 3층보다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 쓰나미는 거듭해서 덮쳐오는 특징이 있으며, 보통 첫 번째 해일 후에 더 높은 해일이 오기도 하므로 일단 해일이 밀려가더라도 절대 바다 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 해수욕 중인 경우, 감시원 및 인명 구조원이 있는 해수욕장에서는 지시에 따라 신속히 대피해야 합니다.



04 해안과 연접한 하천변에서는...

쓰나미는 물이 가득 차있는 강을 거슬러 올라옵니다

- 강의 흐름을 따라 상류 쪽으로 피난해도 해일이 덮쳐오기 때문에 하천의 직각방향으로 높은 곳이나 2층 이상의 건물 옥상으로 신속히 대피해야 합니다.



05 산간, 산악, 구릉지에서는...

낙석에 주의하고, 급경사지 등 위험한 장소로부터 대피합니다

왜? 낙석에 맞거나 산사태로 토사에 깔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 등산이나 하이킹 등으로 산에 있을 때 강한 흔들림이 발생하면 우선 낙석으로부터 신변을 보호해야 합니다.
- 지진으로 지반이 약해지면 무너지기 쉬우므로 절벽이나 급경사지 등 위험한 장소에는 접근하지 않도록 합니다.



>> 지진 발생 시 대응요령

《교통수단 내에 있는 경우》

01 자가운전 중인 경우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예상외의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 흔들림을 느끼면
 - 급제동은 금물이며, 비상등을 켜고 핸들을 꼭 잡고 앞뒤 차량에 주의하면서 서서히 속도를 줄여 도로 우측에 차를 세웁니다.
 - 시동을 끄고 흔들림이 멈출 때까지 차 안에서 머무르면서 라디오 등을 통해 지진 관련 정보를 얻습니다.
 - 자동차를 두고 대피하는 경우에는 차 열쇠를 꽂아둔 채로 문을 잠그지 말고, 연락처 메모를 남겨두고 귀중품이나 차량검사증을 가지고 창문을 닫고 신속히 대피합니다.
 - 연락처를 잘 보이는 곳에 써두고 대피하면 사후 조치 시 도움이 됩니다.
- 차를 가지고 대피하는 것은 긴급차량 등에 방해가 되므로 삼가야 합니다.
- 고속도로에서는 위의 사항 외에도 다음사항에 유의합니다.
 - 고속주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상등을 켜고 앞뒤 차량에 주의를 환기시켜야 합니다.
 - 고속도로에는 일정 거리마다 비상연락 시설, 진·출입시설, 졸음쉼터 및 비상주차대 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대피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산사태, 교량붕괴, 사고 등으로 통행금지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라디오 등으로 상황을 확인합니다.
- 교량·고가에서는 위의 사항 외에도 다음사항에 유의합니다.
 - 낮은 다리는 붕괴의 우려가 있으며 다리를 건너는 끝부분에서는 속도를 줄여서 건너갑니다. 교량이나 고가는 각각 흔들리는 정도가 다르므로 서서히 감속해서 우측에 정차합니다.
- 터널에서는 위의 사항 외에도 다음사항에 유의합니다.
 - 천장이나 벽면 붕괴의 위험이 있으므로 전방에 출구가 보이면 저속으로 터널을 빠져 나갑니다. 긴 터널인 경우 우측으로 주차하고 키를 꽂아둔 채로 비상구로 탈출합니다.
- 긴급수송도로·재해 시 교통통제
 - 지진 직후부터 발생하는 긴급 수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지정되어 있는 도로를 말합니다. 지진 발생 시의 교통통제에 대해서도 기억해 둡시다.

02 전철 내에서는...

긴급 정차에 대비하고 다치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거나 난간, 손잡이 등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 강한 흔들림을 감지하면 전철은 긴급 정차합니다.
- 좌석에 앉아있는 경우 낮은 자세를 취하면서 머리를 가방 등으로 보호하고, 서있는 경우에는 난간, 손잡이를 꼭 붙잡고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정차 후에는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침착히 행동합니다.
- 주위에 사회적 약자의 신변을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맙시다.



03 고속열차(KTX) 내에서는...

고속열차(KTX)는 지진감지 경보시스템이 작동하면 긴급 정차합니다

- 고속주행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좌석에 앉아있을 때는 앞으로 몸이 튕겨나가지 않도록 좌석 사이에 몸을 숨기면서 의자를 붙들며, 서있는 경우에는 난간을 꼭 잡고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정차 후에는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침착하게 대피합니다.
- 주위에 사회적 약자의 신변을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맙시다.



>> 지진 발생 시 대응요령

04 지하철 내에서는...

일정기준 이상의 진동이 계속되면 운전을 정지하며, 선로상의 안전을 확인한 후 저속으로 가장 가까운 역으로 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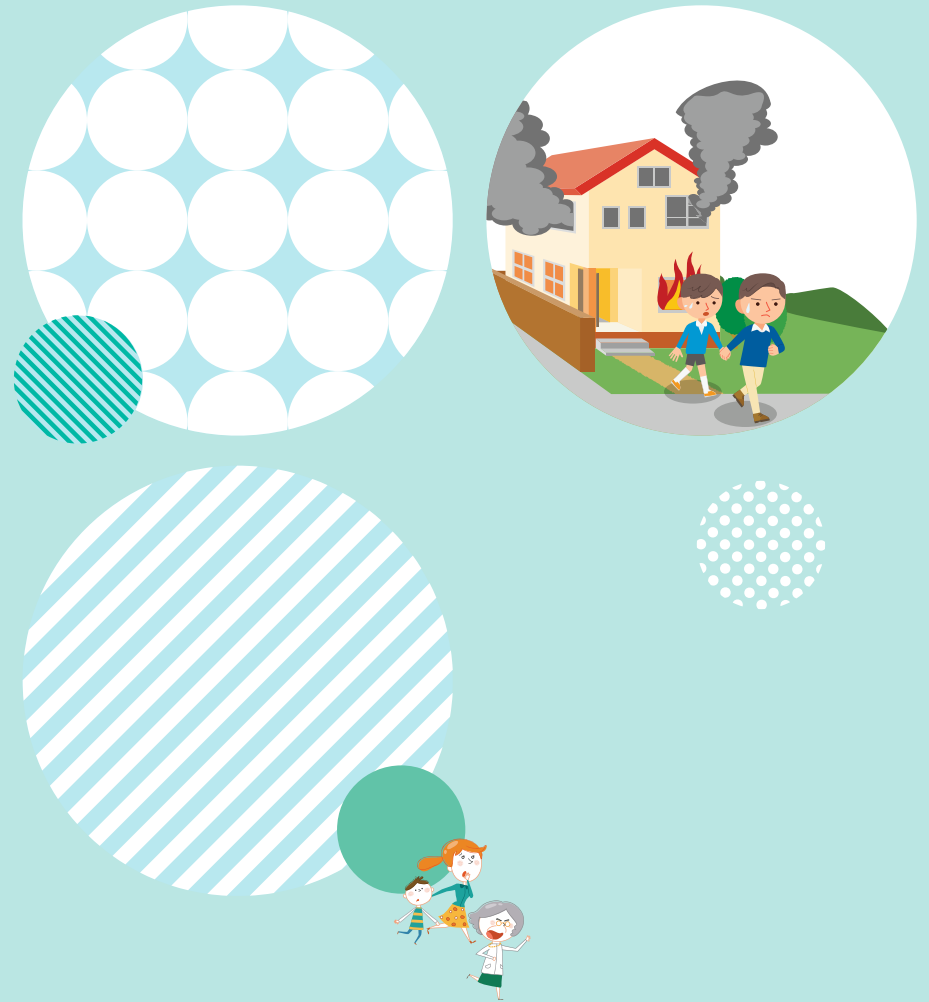
- 지하철 운행속도는 시속 60~90km 정도입니다.
- 좌석에 앉아있을 때는 낮은 자세를 취하면서 머리를 가방 등으로 보호해야 하며, 서 있을 경우에는 난간이나 손잡이를 꼭 붙잡고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정전이 되어도 바로 비상등이 켜지므로 당황하지 말고 안내방송이나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합니다.
- 지하철에 따라서는 고압전선이 선로 옆에 설치되어 있기도 하므로 함부로 선로로 뛰어내리면 매우 위험합니다.
- 주위에 사회적 약자의 신변을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맙시다.



05 버스 내에서는...

급브레이크를 밟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치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고 난간이나 손잡이를 꼭 붙잡아야 합니다

- 강한 흔들림이 느껴지면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급제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좌석에 앉아 있을 때는 낮은 자세를 취하면서 머리를 가방 등으로 보호해야 하며, 서있는 경우에는 난간이나 손잡이를 꼭 잡고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정차 후에는 운전기사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대피합니다.
- 주위에 사회적 약자의 신변을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맙시다.



Ⅲ. 지진의 흔들림이 안정된 후
대응요령



>> 지진의 흔들림이 안정된 후 대응요령

01 신변의 안전 확보

우선 주위를 확인하고
신변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 당황해서 급하게 행동하면 넘어진 가구류, 떨어진 유리 파편 등에 의해 다칠 수 있습니다.
- 작은 흔들림이 있을 때, 혹은 흔들림이 가라앉은 후에는 창문이나 문을 열고 출구를 확보해야 합니다.
- 야간에는 넘어지거나 추락 등의 위험이 있으니, 손전등을 사용하여 안전에 주의하여 대피합니다.
- 주위에 사회적 약자의 신변을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맙시다.



02 피난 시 올바른 판단방법

올바른 정보에 의한 판단이
당신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유언비어가 난무하기 쉽기 때문에 소문에 현혹되지 말고, 텔레비전·라디오·관공서 등의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올바른 상황 파악을 해야 합니다.
- 관공서에서 대피 지시나 권고 등이 발령되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 관공서의 지시·권고 등이 없더라도 신변에 위험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면 망설임 없이 대피해야 합니다.
- 소방서·경찰서 등은 응급·구조 활동 등으로 매우 분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적인 재해 상황 문의 등은 비상활동에 지장을 주므로 삼가야 합니다.
- 지진 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전화를 사용하여 전화 연결이 어렵기 때문에, 전화나 휴대전화 사용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해야 합니다.



03 피난 시 행동요령

3-1 집을 나설 때에는...

대피소로 피난할 때에는 주위를 확인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합니다

- 집 밖으로 나갈 때에는 주위의 유리나 간판 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피난할 때에는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 밸브를 잠급시다.
- 우리 집의 안전을 확인한 후에는 이웃의 안부도 확인합시다.
- 겨울철에는 추위로 몸상태가 나빠질 수 있으니, 두꺼운 옷이나 휴대용 난로 등 방한에 대비하여 대피합니다.



3-2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화재의 경우 연기가 사망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침착하게 낮은 자세로 피난해야 합니다

- 평소에 화재 발생 시를 대비해 대피경로를 확인해 둡시다.
- 화재경보기가 울리면 주변 상황을 확인하여 소화기로 초기 진화를 하거나, 신속하게 대피해야 합니다.
- 연기가 방과 복도에 짙은 경우에는 손수건이나 수건 등으로 입·코를 단단히 막고, 연기를 흡입하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어 피난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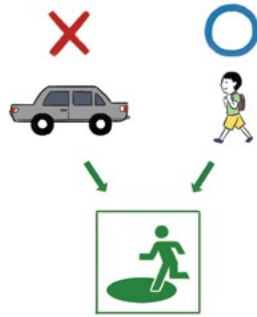
지진의 흔들림이 안정된 후 대응요령

3-3 대피소로 피난할 때에는...

대피소로 피난할 때에는
자동차를 이용하면 안 됩니다

왜? 자동차를 이용하면 교통체증을 일으켜
소방·구급활동 등에 지장을 주기 때문입니다.

- 대피경로는 매우 혼잡할 수 있으므로, 비상용품은 걸기 쉽도록 등에 멜 수 있는 범위로 줄이고, 옷차림은 활동하기 쉬운 복장으로 입어야 합니다.
- 가장 가까운 학교 등이 대피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평소 자기 마을의 대피소를 확인해 두고, 가족과 함께 걸어보면 재난 발생 시 큰 도움이 됩니다.
- 대피 중에 휴대폰, 이어폰 등을 사용할 경우 실족 등 부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을 자제합니다.



3-4 인파 속에서는 패닉에 주의...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피난할 때에는
달리거나 이상한 행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 인파 속에서 갑자기 달리는 행동은 주변 사람들에게 공황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 잘못된 정보와 유언비어에 의한 패닉을 방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합니다.



04 귀가 곤란자의 경우

4-1 귀가 판단 시 고려해야 할 점

장거리를 무리해서 귀가하려 하면 2차 재해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함부로 이동하지 않도록 합니다

- 주변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지역 방송 및 지방자치단체 정보에 따라 귀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 무리해서 귀가하게 되면 도로가 막히거나 혼란이 가중될 수 있으며, 소방활동 등에도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 가족의 안부가 걱정되는 경우에는 전화, 메신저(카톡 등), SNS(페이스북, 트위터 등) 등으로 가족과 연락을 취하고, 안전이 확인되면 무리하게 귀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 귀가하는 일만 생각하지 말고, 상황에 따라 자신이 있는 지역의 구호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4-2 귀가 방법

지진이 일어나면 평소 다니던 도로도 통행이 어려워집니다
평상시에 귀가 경로를 걸어보는 등 도로 상황을 확인해 둡시다

- 도로로 귀가하는 경우를 대비해 평상시 귀가경로를 확인해 둡시다. 재해 시 통행이 금지되거나 혼란이 발생할 위험이 큰 경로는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
- 밤에는 바닥의 낙하물이 잘 보이지 않아 위험합니다. 특히 집까지의 거리가 먼 사람은 시간대도 충분히 고려해 행동해야 합니다.
- 재해 시에는 대피시설로 학교나 공공시설 등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귀가 곤란할 때에는 대피소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진의 흔들림이 안정된 후 대응요령

05 구출 및 구호방법

5-1 초기 화재진화 방법

강한 흔들림이 있을 때는 우선 신변의 안전을 확보한 후에
화재를 진화해야 합니다

- 큰 흔들림이 있을 때는 일단 책상 밑 등으로 대피하여 흔들림이 가라앉기를 기다렸다가 불을 꺼야 합니다.
- 화재가 난 경우에는 주위 사람에게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함과 동시에 근처에 있는 소화기 등으로 초기 진화를 해야 합니다.
- 만약 초기 진화를 못한 채 천장까지 불이 번진 경우에는, 자신과 다른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소방서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 소방대가 도착할 때까지 이웃이나 의용소방대와 협력하여 인근 노약자 등 주민의 대피를 확인하고, 양동이 등으로 화재가 번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5-2 구출활동 및 구호활동

소방대에 의한 구출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민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면 부상자가 많아지고, 도로 통행이 어려워지므로 소방서 등에 의한 구출활동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벼운 부상 등의 조치는 서로 협력하여 응급구호를 해야 합니다.
- 건물의 붕괴나 낙하물 등에 깔린 사람이 있다면 의식이 있는지 확인하고 말을 걸어 의식을 유지하게 해야 합니다. 구출 활동에는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협력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5-3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사회적 약자란 임산부, 장애인, 영·유아, 어린이, 노약자, 외국인을 비롯해 장애가 있는 분들 등입니다. '장애심볼마크(헬프마크)' 등 재해 시 배려가 필요한 사람에 관한 심볼마크를 몸에 지니고 있는 분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와 지원에 유의합니다

- 여성은 옷을 갈아입는 문제, 임산부는 수유 등의 불편함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임신 중이거나 산후 얼마 되지 않은 여성은 건강이나 사생활 보호를 배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어린아이들은 노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발산 시킵니다.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공간이나 시간 등을 확보하고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장애인이나 노인은 불편이 있어도 스스로 말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밝은 목소리로 자주 말을 걸어 고립감이나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배려합니다.
- 외국인은 생활문화의 차이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해 불안해 할지도 모릅니다.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Q & A

Q1 여진은 언제 끝나나요?

A— 지진은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난이므로, 여진 발생여부는 누구도 단언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진 발생 이후 여진의 횟수 및 여진규모가 작아지는게 일반적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진관측·통보 기관인 기상청 홈페이지 및 TV, 라디오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진은 암반의 움직임이 멈출 때까지 여러 차례 일어납니다. 일반적으로 지진은 발생 후 10일 정도 여진이 발생하며 서서히 그 수가 감소하면서 불안감을 느끼게 합니다. 상황에 따라 여진은 그 규모가 갑자기 커질 수 있으니 당황하지 마시고, 평소 행동요령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Q2 콘크리트 건물이 많은 우리나라도 지진 발생 시 탁자 밑으로 숨는게 안전한가요?

A—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국가와 미국 국토안보부가 결정한 지진국가연합(Earthquake Country Alliance)에 의하면 지진이 발생했을 때 바로 대피하는 것보다 튼튼한 탁자나 책상 밑으로 숨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합니다. 지진으로 건물이 무너져서 다칠 확률보다 깨진 유리창, 천장의 낙하물 및 벽돌 등에 맞아 다칠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Q3 지진이 발생하였을 때 건물에서 꼭 나가야 하나요?

A— 반드시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흔들림이 크지 않고 현재 계신 건물이 내진설계가 된 건물이라면, 떨어지는 물체가 없는 집안에 계시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Q4 우리동네 지진대피소는 어디인가요?

A— 지진 발생 시 대피장소는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넓은 공원과 공터로 일시적으로 대피하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여러분의 안전을 위하여 앞으로는 별도의 지진대피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당분간은 주변의 공원과 공터를 미리 숙지하시어 지진 발생 시 해당공간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Q5 지진 발생 시 공원이나 공터로 대피한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대규모 지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에 피해가 발생하여 귀가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시주거시설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지진피해는 지역·장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피해 상황을 파악하여 귀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Q6 내진성능을 확보한 건축물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 공공청사나 학교 등 공공건축물의 경우 지진안전성 표시제 마크가 부착되어 있으면 내진성능을 확보한 건축물입니다. 앞으로는 민간건축물도 내진성능확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만, 2005년부터 3층 이상의 대부분의 건축물은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최근에 지어진 3층 이상 건물은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진안전성 표시제 마크〉

>>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Q & A

Q7 지진해일은 언제 발생하나요?

A — 통상, 지진해일은 규모 7.0 이상, 수심 1km 이상의 조건에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수심이 낮은 편이라서 지진이 발생해도 지진해일이 발생할 확률은 낮은 편입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 서쪽 바다에서 일어나는 해저 지진에 의하여 주로 동해안에서 지진해일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해안까지 지진해일이 도달하는 데까지는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 실제로 동해와 삼척, 임원항은 지진해일로 큰 피해를 입은 적도 있습니다.

☞ 지진해일의 다른 이름은 '쓰나미'입니다.

지진해일(Thunami)이라는 단어는 쓰나미(첨파)라고 불리는 일본어에서 유래하였으며, 'Thu'는 '항구', 'na mi'는 '파도'를 의미합니다. 이 용어는 일본 산라쿠 연안(1896년 6월)에서 발생한 지진해일 피해가 알려지면서 세계 공통어로 사용되었습니다.

Q8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는 어떤 곳인가요?

A — 긴급(임시) 피난을 목적으로 지진해일 발생 시 지진해일 대피지구 내의 주민 등이 10분 이내에 대피가 가능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공간을 미리 정해놓은 곳입니다.



〈긴급대피장소 표지판〉



〈대피로 표지판〉

☞ 긴급대피장소 지정 현황

도내 5개 시군(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에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를 지정해 두었으며, 경북도청 홈페이지 또는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350여 개소의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풍수해 보험



※ 풍수해 보험이란?

국민안전처가 주관하고 민영보험사가 판매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여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지진 및 풍수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상품안내

- 가입대상 :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정부지원 : 총 보험료의 55~92% 지원
(일반 55~92%, 차상위 76~92%, 기초 86~92%)
- 상품종류
 - (상품1) 주택, 온실 정액보상형
 - (상품2) 주택, 세입자동산 정액보상형
 - (상품3) 공동주택 실손비례보상형
- 보험기간 : 1년
- 보상내용 : 전파, 반파, 소파, 침수, 온실 비닐파손

※ 보험료, 보험금 예시 {단독주택 85㎡(26평) 상품} 기준

- 보험료
 - 주민부담 보험료 : 24,400원
(총 보험료 54,300원 중 정부지원 : 29,900원)
- 보험금 예시
 - 전파 : 7천652만원(주택 전체를 재건축해야 하는 경우)
 - 반파 : 3천825만원(내력벽면의 30㎡ 이상 수선하는 경우 등)
 - 소파 : 1천319만원(벽면의 5㎡ 이상 수선하는 경우 등)

>> 지진 발생 시 주요 행동요령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지진으로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습니다.

흔들림이 멈췄을 때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는?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계단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엘리베이터 사용 금지)**
* 엘리베이터 안에 있을 경우에는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먼저 열리는 층에서 내립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건물 밖에서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대피합니다.

대피 장소를 찾을 때는?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 이용 금지)

대피 장소에 도착한 후에는?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 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IV. 피난카드 및 비상용품 점검표

- * 평소 지진 발생에 대비하면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 평상시에 가족과 함께 피난카드를 작성하고, 비상용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피난카드 앞면

〈 피난 카드 〉			
주 소			
이 름			
생년월일	년	월	일 (세)
성 별	남 , 여	혈액형	A, B, O, AB Rh + -
알레르기, 질병, 복용하고 있는 약	알레르기, 질병 :		
	복용하고 있는 약 :		
연 락 처	자 택 ☎		
	휴 대 ☎		
근 무 지 (학교, 직장)			
보 호 자	이 름 :		
	연락처 :		
긴급 연락처(가족, 친척, 지인 등)			
관 계	이 름	전화번호(휴대폰/직장)	
지정 피난소 지도 :			
지정 피난소 주소 :			

※작성 후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 피난카드 뒷면

상시 휴대용품 ※외출 시에 재해를 당할 수 있으므로 몸에 지니는 것을 권장하며, 작고 가벼운 것들이 좋습니다.			
체크 리스트	설 명	비 고	
손전등	정전 시 사용		
휴대폰용 보조배터리	휴대폰, 손전등 등에 비상 시 사용		
호루라기 등	간헐을 때나 위험할 때 상황을 알릴 수 있음		
피난카드			
피난용 지도			
비상 및 유관기관 연락처			
비상 연락처		유관기관 연락처	비 고
재난, 구조와 관련된 긴급상황	119		
범죄와 관련된 긴급상황	112		
일반 민원	110		
메모			

비상용품 점검표

✦ 비상용품 점검표

※ 대피할 때 챙겨야 할 품목들입니다. 비상대피용 가방에 넣어 현관 등 가지고 나가기 쉬운 곳에 놓아둡니다.

증빙서류, 통장, 카드 등		
통장, 신용카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여권 등은 번호를 따로 적어둔 메모나 복사본을 준비합니다.	예금통장	
	신용카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여권	
피난도구		
손전등은 가능하면 1인당 1개씩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전등	
	휴대용 라디오	
	예비 휴대폰 배터리, 건전지 등	
	헬멧 · 호루라기 · 방재용 두건	
생활용품		
대피소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 유아나 노인, 장애인이 있는 경우 등을 고려해 준비 해야 합니다.	두꺼운 장갑	
	담요	
	강통 따개	
	라이터 · 성냥	
	칼	
	휴지 등	
구급상자		
구급상자에는 반창고, 소독약, 상비약을 비롯 해 평소에 복용하는 약, 생리용품 등을 보관 합니다.	구급상자	
	처방전 기록(메모)	
	위장약 · 변비약 · 지병의 치료약	
	생리용품	
비상식품		
최소한 3일분 준비, 조리 없이 그대로 먹을 수 있는 것이 편리합니다.	건빵	
	통조림	
	영양보조식품	
	사탕 · 초콜릿	
	생수	
의류		
의류는 활동하기 쉽고, 방수 · 방한기능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속옷 · 양말	
	긴 소매 · 긴 바지	
	방한용 재킷 · 우산(우의)	
기타		
휴대용 난로		

비축용품 점검표

✦ 비축용품 점검표

※ 비축용품은 재해 복구까지의 짧은 기간 동안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물품입니다. 창고나 자동차 트렁크 등에 나누어 보관해 두면 편리합니다.

식료품		
레토르트식품(고압가열살균 가공식품) (밥 · 죽, 햄버거 등)	장기보존이 가능하게 고압가열살균한 가공된 식품	
인스턴트 라면 · 국 등	쉽게 조리할 수 있는 음식	
생수 · 음료수	1일 3리터가 적당하며, 최소 3일분은 준비	
생활용품		
급수용 물통	평소 물통에 수돗물을 담아두면 재해시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함	
휴대용 가스버너 및 여분의 가스		
휴지 · 물티슈	물티슈는 씻을 수 없는 재해 상황에서 몸을 닦는 등 편리하게 활용됨	
랩	식기 위에 깔면 씻을 필요가 없어 편리	
종이그릇 · 종이컵 · 나무젓가락		
간이 화장실용 봉지		
비닐봉투	우산(우의)과 갈개, 간이화장실 봉지로도 사용가능.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치지 않는 것으로 준비	
밧줄	구조 활동 시 사용할 수 있음	
공구세트		
빗자루와 쓰레받기	유리나 낙하물 제거에 유용함	
손전등		
등산화 또는 장화	유리나 낙하물 등으로부터 발을 보호함	

관련기관 연락처 **(재난안전 신고센터: 119)**

번 호	기 관 명	소 재 지	연 락 처		우편 번호
			전 화	FAX	
1	국민안전처	세종시 정부2청사로 13	044)200-5185	044)200-8927	30128
2	경상북도청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054)880-4119	054)880-4939	36759
3	경상북도지방경찰청	대구 북구 연암로 40	053)429-2164	053)429-2364	41542
4	경상북도교육청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511	054)805-3154	054)805-3649	36759
5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경북 포항시 북구 해동로 376	054)245-1548	054)247-2122	37716
6	제50보병사단	대구 북구 학정동 사서함 79-1	053)320-6402	053)320-6969	41407
7	KBS 대구방송총국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496길 30	053)757-7440	053)757-7197	42095
8	KT 대구고객본부	대구 남구 봉덕로 61	053)477-5831	053)477-5847	42429
9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대구 북구 구암로 158	053)320-0749	053)325-7759	41463
10	한국수자원공사 경북지역본부	대구 수성구 청수로 43	053)668-1271	053)668-1288	42155
11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중부물관리센터	대구 달성군 다사읍 강정본길 57	053)667-7278	053)667-7245	42917
12	한국수자원공사 안동권관리단	경북 안동시 호반로 46	054)850-4221	054)850-4231	36710
13	한국전력공사 대구경북본부	대구 북구 원대로 110	053)350-2352	053)350-2339	41590
14	한국도로공사 경북지역본부	대구 북구 관음로 61-26	053)320-9266	053)320-9369	41448
15	한국가스공사 경북지역본부	경북 경산시 진량읍 공단6로 122	053)850-1831	053)850-1845	38468
16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대구 중구 명륜로 16	053)250-9832	053)254-3254	41965
17	대구기상지청	대구 동구 효동로2길 10	053)956-0365	053)952-0368	41179
18	경상북도의회	대구 북구 대현로 82	053)941-7785	053)941-5557	41571
19	경상북도약사회	대구 동구 동부로 22길 28	053)742-5160	053)755-5077	41242
20	대한건설협회 경북도회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74안길 11	053)755-5007	053)756-4617	42020
21	대한건축사협회 경북건축사회	대구 동구 동부로30길 61	053)744-7800	053)751-8308	41248
22	바르게살기운동 경북협의회	대구 북구 연암로 40	053)956-6969	053)956-9007	41542
23	경상북도새마을회	경북 구미시 박정희로 229	054)462-1970	054)462-1974	39331
24	한국열관리시공협회 경북도회	경북 안동시 화성아랫길 6	054)856-3392	054)857-8868	36691
25	대한건설기계협회 경북지회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659번길 6	054)283-4780	054)283-4781	37762
26	경상북도종합자원 봉사센터	대구 남구 중앙대로38길 13-2	053)473-1365	053)473-1364	42425

가족을 위한 대피(피난)용 지도 작성

가족을 위한 대피(피난)용 지도 작성하여 붙이기

※ 우리 가족이 피난할 수 있는 대피소(피난소)를 알아보고,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경로를 가족이 같이 그려보고 이 난에 붙이도록 합니다.

• 대피용 메모 :

발행일 _ 2016년 11월

발행 _ 경상북도지사

편저 _ 정교철, 임호근, 김구열

기획 _ 경상북도 도민안전실 자연재난과

자문단 _ 안전 경북 365 / 100인 포럼
지진안전분과위원회

디자인 _ 밝은사람들 www.hongbosil.com



www.gb.go.kr

